

대표주자 '끝장승부'...취약지 '세 확장'에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선출을 위한 결선투표(12-14일)가 전남·광주 대표주자인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와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읍) 간 '끝장승부'로 압축되면서 취약지에서 지지세 확장이 승패를 가를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2·3·4·5면

특히 '전남 vs 광주' 대결 구도로 경선관이 재편돼 두 후보가 취약지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결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지지층 결집, 부동·중도층 흡수와 함께, 신정훈 국회의원·강기정 예비후보(광주시장 직무정지) 등 경선 탈락 후보와의 연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경선이 끝난 직후인 6일 김영록·민형배 후보(가나다 순)의 공식 행보는 취약지 공약으로 확연히 엇갈렸다. '전남의 땀' 재선 전남지사인 김 후보는 광주에서, 광주지역 '간판' 재선 국회의원의 민 후보는 전남 동·서부권을 오가며 각각 세 확장에 주력했다.

김영록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선 승리를 향한 의지를 밝히며 통합 이후 특별시 운영 구상에 대해 '탕평과 균형'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전남도정을 운영하면서 인사나 조직에서 평가가 없고 균형 있는 인사를 해왔다"며 "통합 이후에도 인사와 예산, 지역 발전, 산업 배치에서 균형을 제1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막중한 책임감으로 가슴에 새기고 결선에 임하겠다"며 "김영록의 솔모를 특별시민에게서 직접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통합특별시의 출범은 광주와 전남, 대도약의 기회이지만 통합 이후의 길이 더 어렵고 내부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얕힌 매듭을 풀어낼 유능한 행정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 앞에서 특별시민은 누가 통합특별시의 적임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가 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록 예비후보 측 제공>

자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제안하고 설계해 통합특별시 예산 20조원 시대의 문을 연 것은 저 김영록"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김 후보는 "정치는 큰 소리로 세력을 만들지만 자치단체장은 시민의 불평을 달아내야 한다"며 "투쟁의 언어가 아니라 유능한 행정이 시민의 삶을 바꾼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광주에서도 여론의 호응이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고 있다"며 "광주에서 학창시절과 공직 생활을 보낸 만큼 광주를 잘 안다. 광주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고 취약지로 꼽히는 광주 공력에 공을 들였다.

이에 맞서 민형배 후보는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 오후엔 순천시의회에서 각각 결선 기자회견

6·3 지방선거 D-57

민주 통합특별시장 경선 결선투표 전망

'전남 땀' 김영록 vs '광주 간판' 민형배
지역간 대결 구도 뚜렷...표심 잡기 총력전
12-14일 결선...결과예측힘들다
'캐스팅보트' 신정훈·강기정 연대 여부 촉각
순, 광주서 '탕평·균형 원칙' 강조 '세몰이'
闊, 동·서부권 정책 비전 제시하며 '젠걸음'

을 열어 서부권·동부권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민 후보는 "성장·균형·기본소득·녹색도시·시민주권이라는 5개 원칙 위에 통합의 기둥을 세우겠다"며 "전남광주를 남부권의 신산업 수도로 키워 거대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산업 경쟁력으로 바꿔 기업이 앞다퉈 찾아오는 '100원 전기' 시대를 열겠다"며 "어느 지역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산·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도시를 조성하겠다. 시민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고 통제하는 시민주권 통틀을 만들겠다. 통합의 성과와 이익이 특별시민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 후보는 "서부권은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특별시 경제 발전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서부권의 햇빛과 바람을 산업 경쟁력으로 바꾸고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으로 우뚝 서게 할 것"이라며 "서부권은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재생에너지 산업 수도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읍)이 6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형배 국회의원 측 제공>

이와 함께 민 후보는 ▲동부권 산업 대전환 ▲RE100 기반 첨단기업 유치 ▲여수공항·여수항·광양항 거점 육성 등을 공약하며 "통합의 최대 수

혜지는 동부권이 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같은 두 후보의 취약지 공략 움직임은 오는 12-14일 진행될 결선투표(권리당원 50%+일반 여론조사 50%)까지 계속 이어지며 승패를 예측하기 힘든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두 후보 진영은 '캐스팅보트'를 쥔 신정훈·강기정 후보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최종 연대 결과에 유권자들과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영록 후보가 신정훈·강기정 후보와 손을 잡을 경우 전통적인 전남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광주지역 지지세 확장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신 후보의 지역구인 나주·화순 등 광주 근교권까지 더해 확실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민형배 후보 입장에서 동부권을 대표하는 주철현 국회의원의 단일화에 이어, 신·강 후보의 지지를 얻어내면 광주 지지층을 공고히 하고, 취약지인 전남의 민심을 상당 부분 흡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결선은 조직력 대결을 넘어 누가 더 폭 넓게 외연 확장에 성공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신정훈·강기정 후보와의 연대, 부동·중도층 흡수 여부가 최종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5월1일 노동절도 이젠 '법정 공휴일'

국무회의 의결...교사·공무원도 보장

법 제정 63년 만에 '전 국민 휴일'로

올해 5월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법 제정 후 63년 만이다.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했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어 사용돼왔다. 1991년에는 유급 휴일로 법제화했으나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고 이번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인사처는 법 개정엔 맞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Today

관리사각 '자토바이' 불법 개조 주의보 6면

'자기관리시대' 불황속 헬스장은 늘어 12면

"KIA, 타산 살아야야 흐름도 바뀐다" 16면

※ '신문의 날' 휴무...8일자 신문 쉽니다

알림

광주매일신문 제13기 창조클럽아카데미 제2강

박지훈 변호사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생활법률'

오늘 오후 6시 L7층장바이 롯데호텔

광주매일신문은 광주·전남 각 분야 리더에게 최고 수준의 강의와 네트워크의 장을 제공하는 '제13기 창조클럽아카데미' 2강을 7일 개최합니다.

2강은 이날 오후 6시부터 L7층 장바이 롯데호텔에서 박지훈(사진) 변호사를 초청해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생활 법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이어갑니다.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 현진 대표변호사로 다수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날카로운 분석과 재미 있는 입담을 선보이며 대중적인 인지도와 신뢰를 동시에 쌓아왔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딱딱한 법률 용어를 일상 언어로 풀어내는 '법률 커뮤니케이터'로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수많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제시하며 의뢰



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박 변호사의 특강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법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에게 꼭 필요한 법률적 소양과 해안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일시 = 2026년 4월 7일(화) 오후 6시
- ▲장소 = L7층 장바이 롯데호텔
- ▲강사 = 박지훈 변호사
- ▲주제 =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생활 법률'

2026년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주요 행사 일정

순천아랫장 야시장 운영기간 2026. 1. ~ 12. ※ 매주 금·토 개장시간 18:30 ~ 22:00 장소 아랫장 유개장육 내	순천웃장 국밥축제 운영기간 2026. 9. 8.(화) ※ 총 1회 실시 개장시간 11:00 ~ 16:00 장소 웃장 국밥거리 일원	담주다미예술구 월담 행사 운영기간 '26. 5. ~ 6. ※ 총 8회(주2회(금토)) 실시 개장시간 18:00 ~ 21:00 장소 시장 및 담주다미예술구
고을 전통시장 수재매주 축제, 별별야시장(버스킹, 플라마켓, 체험프로그램, 음식 판매 등) 운영기간 '26. 5. 29. ~ 10. 31. ※매월 마지막주 금·토일 개장시간 17:00 ~ 21:00 장소 시장 일원	화순고인들 전통시장 지역농산물 홍보부서, 전통문화 체험학습 운영 화순 블랙푸드, 고객강사 이벤트 등 운영기간 '26. 10. 18. ~ 11. 15. ※매월 3·8일 장날 추진 개장시간 10:00 ~ 21:00 장소 시장 내 무대	와라페스티벌 개최 먹거리·공연·체험·이벤트 등 운영기간 '26. 5. 1. ~ 5. 2. 개장시간 16:00~23:00 장소 화순광역문화광장 일대
빙영전통시장 불금불까 지역 예술인 공연, 돼지불고기·하얗은맥주 등 먹거리 판매, 플라마켓 운영 운영기간 '26. 4. 3. ~ 6. 20. / '26. 9. 4. ~ 10. 23. ※매주 금·토일 7~8월 휴장 개장시간 16:00 ~ 20:00 장소 시장 내 중앙 무대	무안 전통시장 향토예술 토요아시장 문화예술공연, 먹거리·플라마켓 운영 등 운영기간 '26. 6. 27. ~ 9. 26. ※ 총 6회 (6.27./7.11./8.12./9.19./9.26.) 개장시간 18:00 ~ 22:00 장소 시장 일원	완도전통시장 문화예술공연, 먹거리장터, 체험행사 등 운영기간 '26. 10. 1. ~ 10. 31. ※매주 토요일(총 4회) 개장시간 18:00 ~ 21:00 장소 시장 일원